



ISO TC130(국제표준화기구 인쇄기술위원회)와 세계 총회, 그리고 인쇄패키징 업계 제언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컬러로 갖가지 형형색색으로 포장된 조물주의 작품을 보며 아름다움과 멋을 만끽하던 늦가을, 한국의 인쇄와 출판, 디자인, 유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파주출판단지에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TC130 워킹그룹 회의 및 총회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지적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활동 분야에서 정부간 세계 상호협력력을 위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ISO안의 ISO/TC130은 인쇄정보산업 전반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기술적/산업적 표준화 실행하는 전문기술위원회로서 세계의 그래픽 인쇄기술표준관련 갱신, 심사, 제안 등을 하는 일을 한다.

ISO/TC130은 인쇄와 그래픽기술에 있어서 오리지널(원본)에서 후가공(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용어, 테스트방식, 사양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 산하에 ISO/TC130은 아래와 같이 워킹그룹(WG)으로 구성되어 있다

- WG1 용어(Terminology)
- WG2 프리프레스 데이터(Prepress data exchange)
- WG3 프리프레스 데이터(Process control and related metrology)
- WG4 미디어 및 재료(Media and materials)
- WG5 인체공학 안전(Ergonomics/Safety)
- JWG7 컬러관리(Colour management(Joint WG with ICC))
- JWG8 ISO13655의 개정(Revision of ISO 13655(Joint WG with ISO/TC 42))
- JWG9 ISO12640-5개발(Development of ISO 12640-5(Joint WG with ISO/TC 42))



김 주 호

ISO/TC130 한국위원장
후술 대표

-WG10 보안인쇄공정의 관리(Management of security printing processes)

-WG11 인쇄물의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of printed products)

-WG12 후가공 (Postpress)

-WG13 인쇄인증요구사항(Print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JWG14 인쇄품질 측정방법(Print quality measurement methods(Joint with ISO/IEC JTC 1/SC 28)

-JWG15 ISO20294의 개발, 공동(Development of ISO 20294)

(ISO20294의 개발, 공동ISO)

-TF3 워크플로 표준로드맵(Workflow standards roadmap)

한국에서는 대한인쇄기술협회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0년 3월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인쇄기술 분야인 TC130 한국위원회를 구성했다.

2010년 위원회 초기 단계에서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14인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개선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위촉 전문위원 20인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간 열렸던 29차 ISO TC 130 워킹그룹 회의 및 총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 97명(한국포함)의 전문위원들이 모여 많은 부분의 결정이 되었다.

특히 패키징관련분야는 WG12 후가공 분야와

WG13의 인증요구사항과 연관되는데 ISO 16761-1: 톤&컬러 요건(전체적인 톤 및 컬러 품질에 대한 요건) 모든 톤과 컬러에 대한 상업 및 패키징 인쇄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으로 제정-ISO 19301 패키징 / 커머셜 인쇄 및 다양한 인쇄 공정의 표준 인증 요건 리스트, 일렉트로닉 요건 포함해 제정미국 및 프랑스의 패키징 및 상업인쇄를 위한 인쇄 표준 인증 과정 리뷰 및 승인등 기준들을 승인하고 제정하였다.

오늘날 정보는 우리산업에서 배의 키와 같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가지 다변화된 제품에 대한 패키지가 친환경적요소(탄소배출량 계산)와 보안성, 특허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품을 디자인하고 잘 만든다고 하여도 세계적인 니즈에 대응 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환경속에서 세계최고의 제품과 더불어 그 제품을 만나기 위해 먼저 대하는 얼굴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만리장성을 쌓고 기준을 제정하여 후발주자를 방어하는 전쟁에서 우리는 장벽의 출입구의 위치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인쇄 패키징산업이 발전하고 있고,점점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포장협회 회원사여러분께 찬사를 보내며, 저희 ISO TC130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세계 인쇄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앞으로 한국 인쇄 패키징 산업 역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